신뇨엔 창종 90년, 행복의 길 전하다

신뇨엔, 인류에 행복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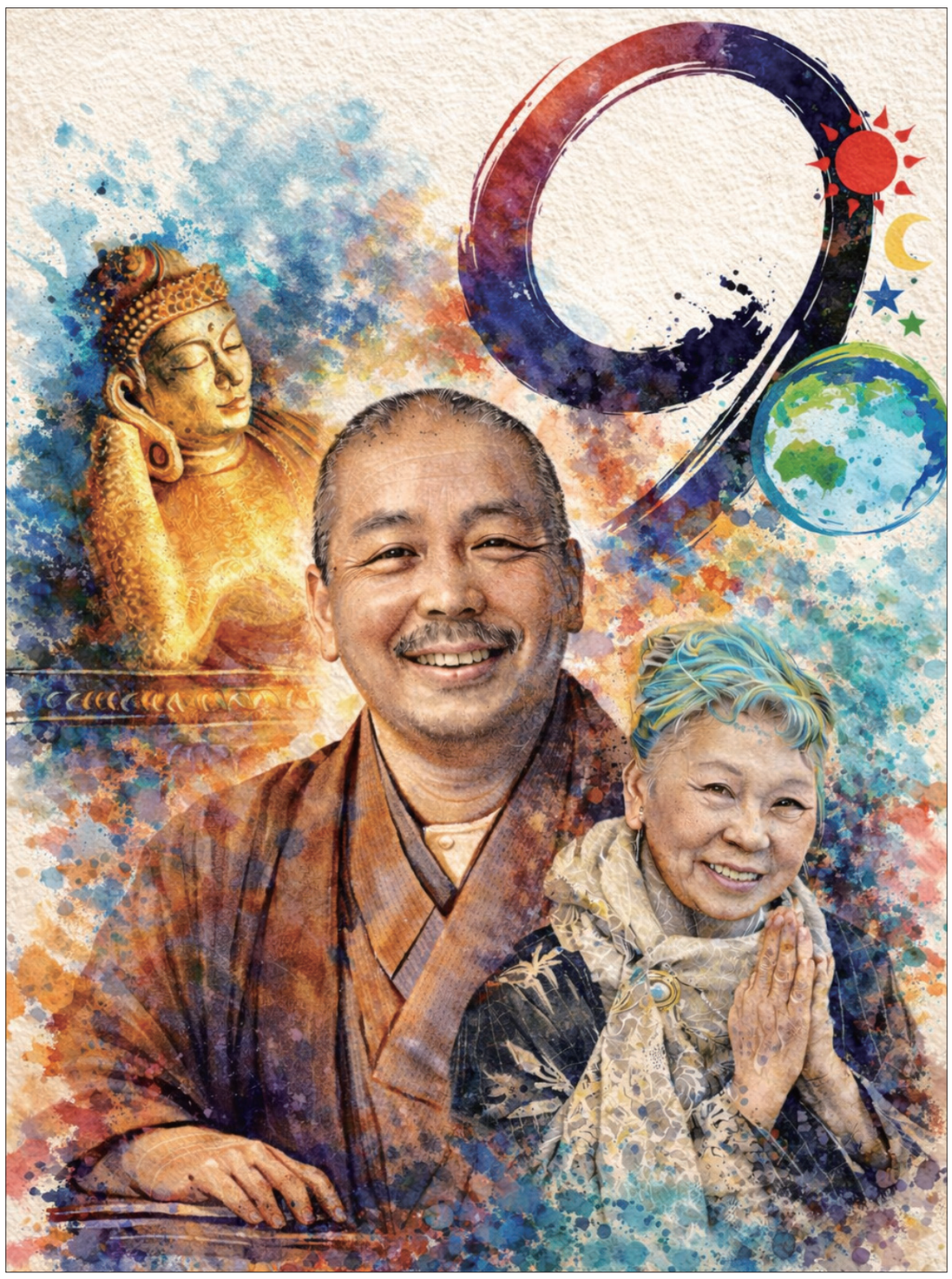
① 수행전통

"濟世利人의 서원"… 在家, 成佛의 현장 되다

현대 사회는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빈곤이 기형적으로 공존하는 시대를 지나고 있다. 기술은 인류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었지만, 역설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은 방황한다. "어떻게 살아야 진정으로 행복할 것인가?"라는 근원적인 질문 앞에서, 우리는 종종 길을 잃는다.

2026년 2월 8일, 창종 90주년을 맞은 신뇨엔(眞如苑)의 역사가 우리에게 묵직한 울림을 주는 이유는 바로 이 지점에 있다.

1936년, 이토 신죠(伊藤真乘, 1906~1989) 개조와 이토 토모지(伊藤友司, 1912~1967) 영조 부부가 세상을 이롭게 하겠다는 '제세이인(濟世利人)'의 뜻을 품고 시작한 신행공동체는 지난 90년간 '불교의 생활화'라는 화두를 붙들고 씨름해 왔다. 이는 현대인들이 자신의 삶을 긍정하고, 그 안에서 부처의 성품을 발견해 나가는 '행복 탐구'의 여정이었다. 본지는 신뇨엔 창종 90주년을 맞아, 신뇨엔이 걸어온 수행과 전통의 길을 통해 이 시대 진정한 행복의 해법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그 첫 번째 순서로, 신뇨엔을 지탱하는 수행의 골격과 그 안에 담긴 정신을 들여다본다.



신뇨엔 90주년 삽화

'열린 밀교', 산문 넘어 대중 속으로

신뇨엔 수행 체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뿌리를 더듬어 올라가야 한다. 흔히 신흥종교라는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신뇨엔의 영적인 뿌리는 1,200년 역사를 지닌 일본 정통 밀교, 진언종(眞言宗)의 심장부와 맞닿아 있다.

개조 이토 신죠는 진언종의 총본산인 다이고지(醍醐寺)에서 수행하며 불교계의 입지전적인 인물로 성장했다. 그는 혹독한 수행 끝에 '혜인관정'과 '전법관정'을 모두 계승하며 밀교의 비법을 전할 수 있는 '대아사리(大阿闍梨)'의 지위에 올랐다. 재가 수행자가 최고의 승직까지 오른 것은 불교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사건이었다. 그러나 이토 신죠 개조는 산중의 높은 법상(法床)에 앉아 대중을 내려다보기를 거부했다. 그는 전통 밀교의 심오한 가르침을 나날의 일상에 융합하여, 출가와 재가의 구별 없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전통의 법맥을 잇되 형식의 장벽을 허문 것으로, 신뇨엔이 표방하는 '열린 밀교'의 핵심이다. 현재 그 법맥은 개조와 영조를 부모이자 스승으로 모시며 수행한 이토 신소(伊藤真聰) 현 원주(苑主)에게로 적통 계승되어 전 세계 교도들을 이끄는 정신적 구심점이 되고 있다.

〈대반열반경〉 속 희망, "누구나 부처"

이처럼 대중 속으로 파고든 신뇨엔의 정신은 어떤 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을까. 이토 신죠 개조가 수많은 경전 중 주목한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마지막 유훈이 담긴 〈대반열반경(大般涅槃經)〉이었다.

초기 불교가 '인생은 고(苦)'라는 인식을 통해 집착을 끊는 데 주력했다면, 〈열반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상락아정(常樂我淨)'을 설한다. 또한 '일체중생 실유불성(一切衆生 悉有佛性)', 즉 모든 생명에게는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이 깃들어 있다고 선언한다. 신뇨엔은 전통 밀교의 가르침인 '입아아입(入我我入, 부처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부처 안에 들어감)'을 열반경의 '실유불성' 이치와 회통시켰다. 이 긍정의 철학은 신도들에게 "당신의 삶은 단순히 견뎌내야 할 고통의 바다가 아니라, 행복을 찾아가는 수행의 도량"이라는 자존감을 심어주었다. 신뇨엔이 90년간 대중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이 '긍정의 인간관'과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성불의 가능성에 있다.

'접심(接心)'으로 마음 닦다

모든 사람은 부처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론'을 알았다면, 이제는 그것을 '실천'으로 옮길 차례다. 신뇨엔을 특징짓는 가장 독창적인 수행법인 '접심(接心)'은 바로 이 지점에서 작동한다.

신뇨엔은 밀교 수행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접심'이라는 독자적인 수행법을 확립했다. 이는 영적 지도자(영능자)와 수행자가 마주 앉아 이루어지는 문답 혹은 명상의 형식을 띤다. 이토 신소 원주는 개조와 영조로부터 이어지는 '진여 영능(영적 능력)'을 전통에 따라 계승하고 있으며, 영능자는 이러한 영적 직관을 통해 수행자의 마음 깊은 곳을 비춰준다. 이는 점술이나 예언과는 다르다. 접심은 마치 거울을 보듯 자신의 내면을 객관적으로 마주하게 하는 고도의 종교적 성찰 과정이다. 수행자는 이를 통해 자신의 고통이 외부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내면의 마음가짐에서 비롯되었음을 자각하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타행의 과제를 얻는다. 현재 신뇨엔에서는 국적과 언어를 불문하고 많은 교도가 이 접심 수행에 힘쓰며, 상락아정의 기쁨을 체득하고 있다.

초심(初心)을 깨우는 정진, '한(寒)수행'

접심을 통해 일상 속에서 마음을 닦는다면, 그 흐름에 강력한 에너지를 불어넣는 특별한 정진도 진행된다. 신뇨엔에는 매년 1월 20일경부터 2월 초순, 일 년 중 가장 추운 시기인 대한(大寒) 절기를 전후해 이어지는 '한(寒)수행'이라는 전통이 있다.

이 수행의 유래는 창종 원년인 193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토 신죠 개조는 갓 출범한 교단의 기틀을 다지고 중생 구제의 서원을 세우기 위해, 혹한의 추위 속에서 30일간 매일 새벽 찬물을 뒤집어쓰는 수행을 감행했다. 그 치열한 구도심(求道心)을 기리기 위해 뒤를 이은 수행자들은 이 시기를 특별한 정진 기간으로 삼고 있다. 오늘날 한수행은 과거처럼 찬물을 뒤집어쓰는 육체적 고행을 의무화하지는 않는다. 대신 이른 새벽 사원에 모여 경전을 독송하고(독경), 참회하며, 새해의 서원을 세우는 방식으로 그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 신도들은 이 기간 동안 나태해진 마음을 다잡고, 1년 동안 이어갈 신앙생활의 동력을 얻는다. "수행은 행복으로 돌아온다"는 믿음이 신뇨엔의 겨울을 뜨겁게 달군다.

시대와 호흡하는 등불과 수행

신뇨엔의 수행은 고정된 화석이 아니라, 시대와 장소에 따라 유연하게 흐르는 물과 같다. 열린 밀교 정신은 전통을 지키되 그 형식을 현대에 맞게 개혁하는 데 주저함이 없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천도의식의 일환인 등롱 띄우기다. 일본의 전통 등롱 띄우기를 하와이에서 처음 시행할 때, 이토 신소 원주는 현지 문화에 맞춰 일본의 명절이 아닌 미국의 추모일인 '메모리얼 데이'를 개최일로 정했다. 일본의 천도의식과 진주만 공습의 참회를 문화적으로 풀어냈다.

"근본을 잇되 타지와의 동화도 중요하다"는 유연한 사고 덕분에, 현재 하와이 등롱 띄우기에는 5만여 명이 넘는 다민족이 참여하는 세계적인 평화 의식으로 자리 잡았다. 이 의식은 일본과 대만에서도 대표적인 문화축제로 자리 잡고 있다.

디지털 시대의 변화에도 적극적이다. 차세대의 소통 방식 변화에 발맞춰, 신뇨엔은 대면 수행뿐만 아니라 원격지 신도들을 위한 온라인 접심과 회선 중계 시스템을 도입했다. SNS를 활용한 정보 발신을 통해 진여의 가치를 전하는 등, 시공간의 장벽을 넘어 수행의 문턱을 낮추고 있다. 이는 '시대에 응답하여 모든 사람을 구제하고자 하는 필연적인 과정'이라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지난 90년, 신뇨엔은 '불교의 생활화'를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이토 신죠 개조가 뿌린 씨앗은 이토 신소 원주가 이어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꽃을 피우고 있다. 내면을 닦는 접심,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는 호마 등 의식, 그리고 사회를 향한 따뜻한 봉사까지. 이 모든 과정의 끝에는 '나'를 넘어 '우리'의 행복을 바라는 '이타(利他)'의 정신이 있다.

창종 90주년을 맞은 2026년, 신뇨엔은 다시 한번 세상에 말을 건넨다. '등불은 설령 멸할지라도 빛으로 어둠을 깨뜨린다'는 열반경의 구절처럼, 신뇨엔이 밝히는 지혜와 자비의 빛이 현대인의 고단한 삶을 비추는 희망의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노덕현 기자



신뇨엔 야마나시 별원서 펼쳐지는 밀교 전통의 호마의식 모습. 수만명이 참석하는 장엄한 밀교의식이다.





의식을 집전하는 이토 신죠 개조의 생전 모습.

眞如苑 신뇨엔
이타행 90년,
새로운 100년을 향한 발걸음
6대주에 꽃을 피워 세계로 미래로
Shinnyo



신도를 맞이하는 이토 신소 원주



신뇨엔 총본부



신뇨엔 응현원

▷ 신뇨엔 서울정사 :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97길 46 / 전화 (02)719-6998
▷ 신뇨엔 부산정사 : 부산광역시 연제구 반송로 47 / 전화 (051)892-6998
▷ 해외정사 및 포교소 : 24개국 48개 ▷ 집회소 : 51개국 930여개
▷ 한국정사 : 서울 · 부산 · 제주 · 창원 ▷ www.shinnyo-enkorea.or.kr